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599
----------	-------

발의연월일 : 2022. 5. 13.

발 의 자 : 전주혜 · 강민국 · 정우택  
윤창현 · 배준영 · 서정숙  
서일준 · 이종성 · 김승수  
김미애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촬영·보존하도록 하고, 그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기일에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상물에 수록된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증인신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2차피해의 방지를 위한 대안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서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영상물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서 증언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30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6항 중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판준비기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9세 미만인 피해자가 증언으로 인해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증언이 있는 경우
2. 19세 미만인 피해자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행동으로 인해 증언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사가 인정하는 경우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① ~ 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u>공판준비기일</u> 또는 <u>공판기일</u> 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0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u>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판준비기일</u> ----- ----- ----- ----- ----- -----.
<신설>	1. <u>19세 미만인 피해자가 증언으로 인해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증언이 있는 경우</u>
<신설>	2. <u>19세 미만인 피해자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행동으로 인해 증언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사가 인정하는 경우</u>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